

OVERWATCH 2



있는 그대로

JEN STACEY 단편 소설

OVERWATCH[®] 2

글

JEN STACEY

일러스트

HANNAH TEMPLER

도움 주신 분

ANA MARTÍNEZ



있는 그대로

서울을 떠난 지 몇 시간 후. 바티스트는 눈에 익은 대양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캐서디는 몸을 숙여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섰다. "파리하, 괜찮겠어?"

다른 모니터를 보던 파라는 의자를 거의 돌리지도 않고 눈만 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눈 좀 붙이시겠습니까?"

"그럴까 했지."

"문만 잘 달아두십시오. 당신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기습이라도 당한 줄 알 테니까요."

"두고 봐야지. 네가 조종간을 잡는데 잠에 들 수 있으면 다행이고. "캐서디는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레나가 예전에 가르쳐 줬던 곡에 비행이나 도전해 볼까 봐요..." 캐서디는 한 번 더 붙으려는 기색이었지만, 파라가 손을 내저었다. "가서 주무십시오. 무슨 일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바티스트?"

바티스트는 자기 미움이 나오자 자세를 바로잡았다. 파라와 캐서디가 몇 시간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바티스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옆에 어색하게 앉아서 둘의 대화를 들으며 둘이 친하다는 것은 파악했지만, 대화에 끼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파라가 갑자기 대화에 끌어들이니 당황했던 것이다.

"어, 그래." 자신의 말이 입에서 나간 후, 바티스트는 파라의 말을 맹우새처럼 따라 했다. "말씀드릴게."

캐서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망토를 뒤로 넘겨며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파라는 눈을 굴렸다. 바티스트는 극적으로 퇴장하려는 그의 시도가 좋았다.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바티스트가 앉은 자리에서는 파라의 안전벨트 끄트머리가 보였다. 이 수송선에서 아직 벨트를 매고 있는 사람은 파라뿐이었다. 문득 파라가 일종의 규정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도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기로 했다.

바티스트는 루마니아에서 캐서디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간 탈론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느낀 불안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의외로, 날은 무더지지 않았다. 그는 오버워치에 들어가 영웅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파리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길을 걸지 않았다. 바티스트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아무리 속죄하려 하더라도, 탈론의 용병으로 활동했던 과거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가라앉았다.

파라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를 상념에서 끌어냈다. 의자를 바티스트가 앉은 쪽으로 조금 돌린 것이, 꼭 그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듯했다. 괜한 걱정이었던 것일까? 어쨌든 파라는 괜찮은 사람 같았다. 그는 할 말을 찾아 헤맸다. "당신과 캐서디, 흑시?" 그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물었다.

파라의 얼굴에 잠시 머리동절한 표정이 머렸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바티스트는 한쪽 손을 머리 뒤에 대고, 옛날부터 마른 곳을 문질렀다. "그게... 친해 보여서. 그래서 흑시나 돌아-"

"사귀냐고요?"

그녀의 웃음에 그는 흠칫 놀랐다. 낭랑하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에, 그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파라도 마찬가지로였는지,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변한 듯했다. 그녀가 상체를 숙이자 안전벨트가 당겨졌다. 파라는 보기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을 치우자, 눈이 반짝였다.

"아마. 죄송합니다. 워낙... 재미있는 질문이어서요." 파라가 말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어 어깨 너머로 넘겼다. "아뇨, 절대 아닙니다. 콜 님과 저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거든요. 저한테는 오빠나 마찬가지로. 게다가 전 레즈비언이고요."

파라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말했다. 그 말을 하는 태도를 완벽하게 다듬어, 바티스트가 받아 줄 거라는 확신과 함께 선물하듯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면서,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마치 대답하기 전에 파라가 덧붙였다. "뻘히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바티스트가 얼른 말했다. "그냥 넘겨짚고 싶진 않았어. 둘이 서로 잘 아는 것 같았고. 내 질문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면 좋겠네."

그녀는 마치 바티스트 때문에 불편해진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듯이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 "아뇨, 전 괜찮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할 따름이죠."

"아니, 그게... 너도 물론 멋지지만, 난 그냥..." 바티스트는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을 흐렸다.

"아, 콜 님 때문에 물어보신 거였습니까?" 바티스트와 그녀의 시선이 만났다. 깨달음의 순간이 지나갔고, 그는 큼직한 웃었다. "워, 모종의 매력에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네. 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좋거든."

파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가락질을 하고 손을 머리 뒤로 넘긴 후, 조종석에 기댔다. "콜 님은 그런 사람이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만, 오버워치에 복귀하고, 신입 요원들을 명입하고... 지금 아주 긴 길의 끝에 계신 셈입니다. 제가 다 자랑스러울 정도예요."

바티스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해가 가네. 나한테 오버워치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오버워치가 자기에게 기회를 줬다고 했거든."

그는 그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 모두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 생각할 때 말이야. 바로 그 말 때문에 바티스트는 캐서디가 내민 손을 잡았다. 그는 다시 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검고 끝이 없어 보였다. 그 광경과 함께 탈론에 대한 기억이 밀려들었다. 그는 몬테크리시테에서 목구멍에 차오르던 재의 느낌, 포르드페의 파도 소리 위로 들려오던 마우가의 총성을 기억했다. 필사적으로 올라뒀던 보트 두 척, 도망치면서 물 위에서 보낸 기나긴 밤. 바티스트는 자기가 저지른 일, 저지른 실수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것을 용서하리라는 환상은 품지 않았다... 하지만 캐서디는 용서했다.

"터놓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파라의 이 질문에는, 캐서디에게 말할 때와 같이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아니. 오늘은 말고." 바티스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들에 대한 기억과 고통이 가슴 위까지 차올라,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전 콜 님이 당신을 설득한 게 기뻐 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로야. 감명을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지."

"맞습니다. 그분답네요." 파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참 재미있죠. 한참을 못 보다가 다시 제 인생에 들어왔는데도, 예전과 똑같으시더군요. 게다가 지금은 지브롤터로 돌아가고 있단니... 믿기 힘들 지경이죠."

바티스트는 탈론에서 빼낸 오버워치 인물 파일을 떠올렸다. 파리아 아마리. 아나 아마리의 딸. 바티스트는 그 어머니의 프로필을 읽었고, 파리아에 대한 언급도 봤다. 오버워치 요원이었던 적은 없지만 항상 오버워치의 자산으로 간주되었으며, 카미로에서 헬릭스 직원으로 근무하던 인물. "평생 오버워치 주위에 있었으니 이미 사람들을 다 알 텐데, 다시 만나는 게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

파라는 정신이 다른 데 팔린 듯했다. "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자리야와 하나는 처음이죠. 그 외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치글러 박사님은 알아? 그러니까... 호출명으로는 메르시였지."

"망겔라 님이요? 네. 거의 콜 님만큼 오래전부터 알았죠." 그녀는 또 아련한 추억에 잠긴 듯이 말했다.

그녀의 이름, 즉 치글러 박사가 아닌 망겔라라는 이름을 말하는 파라의 모습은 왠지 그에게 몽클하게 와닿았다. "난 베네수엘라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어." 그가 말문을 열었다. "박사님을 쫓다가 콜과 마주쳤지. 마지막으로 있다고 했던 위치는 카이로였는데,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뭐, 파리에서의 소식은 들었겠지?"

"네." 옅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하지만 저도 카이로에서 망겔라 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티스트는 한쪽 눈썹을 치켰다. "그분도 네가 지브롤터로 가고 있는 것을 아나?"

"아뇨. 하지만 망겔라 님도 파리에 있는 팀원들에게 갈 거라고 저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 서로 놀랄 일이 많은 셈이네요." 파라는 시선을 떨구었고, 바티스트는 그런 그녀의 감정을 읽기 힘들었다. 실망인가?

"더 바란 것이 있었나?"

파라는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시죠?"

"그녀가 작별 인사는 해주길 바랐던 거야?"

파라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겨 시선을 돌렸다. "아니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멈추었고, 바티스트는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파라를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녀는 아직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오버워치에 대한 망겔라 님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아는 망겔라 님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소집에 응해야 할지를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어..." 바티스트는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캐물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주제를 바꿔 보려고 애썼다. "지브롤터에 가면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는 몸을 숙여 파라 앞에 있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파라."

그녀는 갑자기 그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을 살짝 찌푸린 채였다. 바티스트는 말을 잘못했나 싶었지만, 그때 그녀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일어서서 한쪽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미소 지었다.

"바티스트 님." 그녀의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바티스트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평온을 느꼈다.

"파리하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떠십니까?"

그는 그녀의 시선을 받고 거울처럼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이지. 고마워."

그녀는 손을 떼고 어깨를 으쓱했다. "고마워하실 것 없습니다. 조종간을 떠넘기려던 참이었거든요."

바티스트의 걱정이 티가 났는지, 파리하가 얼른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하나에게 올라와서 같이 있어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가 조종 실력이 낮기도 할 테고요. 전 잠시 누워있겠습니다."

"알았어." 바티스트가 마치 명령을 받듯듯이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서 좀 쉬어."

파리하는 조종석에서 나오다가 입구에서 발을 멈추었다.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바티스트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파리하의 말을 기다렸다.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지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조종석에서 내려선 파리하는 몸을 완전히 돌려 그의 시선을 받았다. "함께 헤쳐나가야 하나까요."

바티스트는 혼자 있었던 세월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과 파리하의 차이점, 그가 싸워 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생각했다. 파리하가 헬릭스에 몸담고 옳은 일을 위해 싸웠던 만큼, 바티스트는 탈론과 일하는 동안 그 길을 벗어나 있었다. 오버워치에 들어와 파리하의 곁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고심할 이유가 있을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미야기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금의 파리하를 보면 미야기를 듣고도 개의치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도.

그래서 바티스트는 그 대신, 파리하와의 공통점을 찾았다. 이 전쟁의 옳은 편에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들을. 그는 그녀의 자신감을 보고, 그 덕분에 잃었던 자신감이 조금이나마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놀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함께하지."

파리하는 미소를 지으며 가상의 망토를 뒤로 넘기고는 함선 뒤편으로 걸어가다. 바티스트는 부산을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 있었다. 창 밖으로는 바다가 선명하게 보였다. 바람에서 격리되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자니, 문득 도망다니던 세월보다 햇볕이 짙은 해변에서 르포르의 지 파파미를 마시던 시절의 기억이 더 강렬하게 떠올랐다.

바티스트는 눈을 감았다. 낮게 웅웅거리는 화면 소리는 여름 공기의 들뜬 잡음으로 변주되었다. 그는 기억 속의 부트가 아래로 다리를 늘어뜨렸다. 다리는 마치 물결에 휩쓸린 듯이 흔들렸다. 수송선이 계속 날아가는 가운데, 바티스트는 누가 곧 조종석으로 올 거라는 데 안도하고 생각을 미래로 흘려보냈다.

